셀 모임 순서지 (2021년 8월 셋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입니까?

Worship - 찬양

☞ 은혜로다. 소원(삶의 작은 일에도)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 (요나 4:1-11)

요나서 4장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요나의 분노입니다(1~4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싫어했고, 화를 냈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죄악의 성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기에 멸망해야 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 다고 단정했습니다. 과격한 요나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5~11절).

요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가 훤히 보이는 언덕에 초막을 짓습니다. 40일 후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볼 계획이었습니다. 요나가 지은 초막은 나뭇가지로 대충 지은 것입니다. 이제 해가 떠올라 햇빛이 초막으로 들어 올 즈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요나는 그늘로 인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로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셨습니다. 화난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에 크게 기뻐하였다가 죽여 달라고 하는 변덕이 심한 요나에게 너도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인 내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며 말을 마치십니다.

만약 요나서가 요나서 3장으로 끝났다면 정말 해피엔딩이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나서 4장이 나타납니다.

요나서 4장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은 요나의 엉망인 모습이 소상하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줍니다.

그것은 은혜가 없는 요나가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은 이기적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으로 마칩니다.

요나는 요나서 4장 이후 변했을까요?

네 확실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자신의 치부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선지자가 되었지만 은혜가 없는 자신을 고발한 것입니다.

고집불통인 요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나도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2. 적용

- 1) 나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2) 언제 내가 요나 같다고 여겨집니까? 은혜가 없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떡해야 할까요?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②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 1. 교회 리모델링과 2021년 하반기 사역(성경학교 & 수련회, 양육 등)에 큰 은혜를 주소서.
- 2. 미래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불과 성령을 받게 하소서.
- 3.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나라가 안정과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소서.

